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아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뇌에 대해서는 상담해 드립니다. <기획팀: 편집자> ● 본보통: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291호
서기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돌아보면 자취없듯 걸림없이 살라

여러분과 더불어 항상 한자리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 또 드리지만 이 마음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한발짝 떼어 놓으면 한발짝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발짝을 떼어 놓으면 한발짝은 힘이 없어 떼어 놓은 걸로 생각을 하셔야죠? 일평생 살면서 힘이 없어 힘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시거나 걸어 오시거나 하이든 힘이 없어 오신 겁니다. 뒤돌아 보면 온 사이가 없죠. 걸어 올라오다 보면은 걸어온 뒤는 보이질 않죠.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방구 편 맛은 어떠며 저녁에 방구 편 맛은 어떻습니까?

세 상살이의 맛을 알려고, 맛을 알고 맛을 향해서 우리가 꽃 공양, 향 공양 또 곡미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사람이 한 집시에, 한 그릇에 담아있는 우주에 관한 것을 지구로 생각하고 지구가 한 그릇에 몽땅 담아서 그냥 들고 있는 것과 같이 떠 있던 말입니다. 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떠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만 잘못 디셔도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두 막을 쳐놨습니다. 허공 전체에 막을 쳐놨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이를 기를 때처럼 막이 있고 떨어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살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걸 마음의 근본을 가지고 일평생 만사를 다 해쳐가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해쳐 가려면 너무나 빈약하고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종발안에 일체 중생의 생명이 다 공생으로서 한데 담겨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서 분수가 나와서 전부 그저 뿌려 주는 데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오는 것도 없이, 시발점 종점도 없이, 이렇게 힘이 없고 가고 오구나. 이것을 아시면 저절로 한 동구리에, 어미는 새끼에게 항상 먹이를 물어다 주고 하듯 그렇게 인연이 저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없고 뭐가 없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하고 애를 필요도 없는 거죠. 본래는, 여러분한테 진실한 생활이 도라는 거, 진리가 도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도가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약이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약도 한생각을 변형을 하면 선이 되고 선도 한 생각을 바뀌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생각에 달려있다 이런 겁니다. 모두가 한생각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생각에 달려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한생각을, 당신들한테 나쁘게 되는 것을 변연히 알면서도 왜 한생각을 잘 돌리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이 이 세상의 색깔 가지 맛을 알기 위해서 걸었던 그 길,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이 길이란 말입니다.



그림 · 최추현

잘못했던 자식이기 때문에 그 한가지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 남는 건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은 얘기죠. 근본은 자식의 근본이나 부모의 근본이나 다 똑같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죠.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고 부모가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부모이니까 버릴 수가 없고 천리만리 갔다 버려도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공한 뜻, 공생으로 사는 뜻, 공용으로 살고 있고 공식하는 것을 지금은 아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서 생활속에서 어떠한 거든지 질문을 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힘이 없이 하세요. 그대로, 생활이 그냥 그대로니까요. 정신계가 따로 있고 물질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수레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그러다간 살아서 죽고 또 죽어도 못 배워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패기 있게 실천을 하고 가세요. 그냥 하고 가세요. 마음으로 떨지 마시고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두 번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지 마시고 패기 있고 넉넉하게, 아무 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가지고 올 것도 없는데 왜 떨니까?

모두 공했다는 뜻을
이에게 급선무이죠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그냥 내내로 자비를 가지고 계산 다면 틀 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려야 버릴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오늘, 오늘뿐이 아니라 만발 질문하실 때 한발 걸었는데 한발 떼어 놓은 자리가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좀 하고 서로 토론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리라고 보는데...

한발 떼놓은 자리 없어

질문: 잘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삼십이 백일동안 보호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자연분만한 어린 아이에게 수일 내에 병원에서는 예방 접종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어린이는 왕성한 생명력이 있어 그 어떤 병원체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태여 잘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바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엄마의 초유를 먹이는 것이 더욱 건강한 아이를 만드는 예방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서 수일 내에 예방접종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질문을 올립니다.

스님: 부작용이 생기고 안생기고 그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생긴다 생각해도 이유가 붙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하고 싶으면 말없이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건강하겠다 이렇게 안해도 건강하겠다. 이게 여러분의 결정력이예요. 결정력, 결정을 짓는 법이란 말입니다. 가고 안가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붙이지 말고 그냥 결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행하세요. 그렇게 행하시는 게 바로 실천이예요. 도를 배우겠다 한 하겠다 이리저리 말고 실천을 한번 해 나가시는게 그것이 도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를 배우러 이리로 저리로 모두 다니는데 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를 찾으러 다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자기

20면으로 계속

마음 근본 가지고 살라

우리가 지금 꽃을 공양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람 한 개인한테 올린 게 아니라 전체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꽃 공양입니다. 꽃 모습은 이쁘고 아주 아름답지만 가지각색의 향기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온 누리에 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 하나 따로 따로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꽃 공양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면서 스님한테 꽃 공양 올린다고 하지만 스님과 더불어 같이 한자리로써, 이 공부를 하는 데에 바칩니다. 그러면 전 우주에 향기가 두루 퍼진다. 그 향기가 두루 해서 우리 각 자에게 되돌아온다. 공을 치르면 공이 다시 되돌아오듯이,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면 다시 되돌아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꽃 공양, 향 공양, 미 공양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해서 살아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조그마한 종발 안에서라고나 할까, 이리 저리 갈데도 없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여기서 일을 하다가 저기서 일을 하고 물에서 담뱃병받는데 이쪽에서 물에 빠진 발이 움직여졌고 저쪽에서 물에 빠진 발이 움직여졌 겁니다. 그리고 손이 눌러졌습니까. 모든 눈과 귀가 다 눌러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체 새록새록 닦치는 대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닦치는 대로 사시죠. 닦치는 대로 사는데 가외로 또 틀들이 자기도 모르게 닦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닦치는 것이 어떻게 다르나 이겁니다. 모두 움직여리는 건 다르게 움직여졌는데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또 혼자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빨리 알아야 반야심경의 뜻도 아시고, 우리가 홀로 힘이 없이, 가고

내게 있다고 내것이라 생각 말고 그냥놓고 살아도 도둑질 못해요

도의 길이 따로 있고 도가 아닌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의 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약도 선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 쳐도 어떤 분의 촛불만이 꺼지지 않고 다른 촛불들은 다 꺼지더라고요. 비바람이 치니까요. 그 입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는 어느 가난한 노파의 그 촛불 하나만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부처님께 가서 여쭙았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힘이 없어 켜 붙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무너지고 어떠한 것이 물이 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느냐. 그 불은 이 세상을 밝히도 남음이 있는 불이냐'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 생각없이 걸음을 쫓아다니는 게, 우리가 세상살이 사는 길이에요. 발로 걸어서 걸으면 여러분이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손을 눌러 주지 않으면 안되지요. 눈으로 봐주지 않으면 안되지요. 듣지 않으면 안되지요. 전부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더불어 같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내가 따로 내 집을 가지고 산다. 내가 따로 돈을 가지고 산다. 내가 따로 먹을 거를 해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쾅개치고 사셔도 누가 도둑질 못해요. 모두가 자기 것이 아닌걸요. 자기 모습도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에서 부처님

을 봤다. 꿈으로 일러주었다. 꿈에 나타나서 뭐 사는 거를 일러 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건 도가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해서 화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꿈이고 그 것도 꿈인데 왜 꿈을 찾아서 알려고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미쳐가고 더 어리석어지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 것도 꿈이고 현실에 사는 것도 꿈인데 꿈에서 꿈을 왜 또 찾느냐? 꿈에서 부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보면 안보입니까? 여러분 그냥 보세요. 보이죠? 좀 실질적으로 살 것 보세요. 허허허허. 꿈에 보려고 애쓰지 마시구요. 실질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색경을 바라.' 색경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죠. 그래서 "뚫난 내 얼굴만 보입니다." 하니까 그게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 속에서 부처가 적기도 하고 크기도 해서 우주와 같기도 하고 조그마한 보티살 아니 거져서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한 거를 그렇게 말을 해 냈기 때문에 거져서 거져서하지 좀살알경이만 하기도 하고 먼지만 하기도 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한 거를 흉내내서 할 랑으로 노력하지 말고 닦았던 잘났던 내가 가진 내 것, 내가 가진 거를 가지고 발전을 하시라. 발전을 해 보려면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에 선지식들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쓰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선지식이 말씀하신 게 다

거기에 나와요. 나는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모두 공했다는 이 뜻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했다는 뜻이 뭐냐하면, 내 몸을 봐도 공한 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몸 속 세포 하나 하나에도 생명이 들어 있으니, 생명이 들어 있기 보다는 생명체 전체가 움직여지고 있죠. 의식들이 말입니다. 생명의 모습들이 가지각색 해 가지고요. 그러나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거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그 의식들도 저거를 해야겠다 같이 가요. 그러니 나는 큰 신장으로 가야겠다. 가는데 어떠한 게 밝힌 걸리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간다면 의식들도 그렇게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요것 조 것 가리지만 의식들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그냥 갈 뿐이지, 벽도 붓장도 산도 물도 그냥 사람이 하는 대로 해요. 그러기 때문에 공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할 무었이 없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 진리 말씀을 더 말할게 없다. 본래 공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생각 잘 굴리면 묘법

공생으로 살기 때문에 공심으로 산다. 의식 전체가 공심이다. 공심으로 살기 때문에 공체로 산다. 우리가 공체로 그냥, 너는 왜 이렇게 동그랴냐? 나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등골지도 없는데 하나까, 내 모습이 둥근 게 아니

라 너가 사는 게 그냥 둥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심으로 사는 데 공체다. 공체로 살기 때문에 모두 응용하는 게 공용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그림 그린 거 보고 그래도 그것이 다 나지. 편안하게 하려면, 그것이 용이다 하면 용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니고 내 용이다. 내가 지금 의식도 다 한데 모아져서 움직여리는 데 보고 듣고 하는데 그게 나 움직여리는 거와 같으니까 용이 들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매사가 편안하고 발판이 서고 좋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용이다 하면은 내 가지가 한데 그렇게 됐죠. 그 가지는 빠질 수 없이 공식에 합해졌어요. 공식이 다 하는 건 그 네 가지가 한데 합해졌으니까 공식이예요. 그 공식 안에는 너무 색색가지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사람이 들고 내는데 힘이 없이 들고 내는 그 역할은 참 광대무변하다. 힘이 없이 들고 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더 살아가면서, 항상 부모 자식 형제 얘기 해 드리고, 끈이 달려서 맺어 있는 게 아니라 인연들이 붙어 있다고요. 맺음이 붙어 있듯 인연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일을 잘못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고 속을 썩여도 잘못된 걸 변연히 알면서도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단 얘기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잘 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냐가 잘못했

가짜된 인연을 남들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심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저서이론

